

전남-경북 원격화상수업, 지역을 넘어 배움으로 잇다

영암초·구미 선주초, 지역유산 소개·책 제작 등 공동교육과정 운영

전남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14일 광주에서 '전남-경북 원격화상수업 학급 성과 공유회'를 열고, 지역 간 물리적 한계를 넘어 학생 주도성과 협업 역량을 키우는 공동교육과정 운영 성과를 확인했다.

이번 행사는 전남과 경북이 공동으로 추진해 온 원격화상수업 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시도 간 협력 수업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 기반 협력 수업을 중심으로 한 원격화상수업이 학교 현장에 정착하며, 공동교육과정 운영의 실질적 성과 공유와 향후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다.

전남-경북 원격화상수업 운영 우수 사례로 전남 영암초등학교(교사 정경)와 경북 구미선주초등학교(교사 김도환) 4학년 학급 간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두 학교 학생들은 화상회의 플랫폼과 제작 도구를 활용한 자기소개 발표, 주제별 공동 발표, 온라인 대화와 편지글 교류, 지역 특산품과 간식 교환 활동 등은 학

생 간 상호작용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

특히 1학기에는 '서로 다른 지역의 국가유산 탐구하기'를 주제로 공동 프로젝트 수업을 운영해, 학생들이 각 지역의 문화유산을 조사하고 포스터와 뮤직비디오 등 디지털 자료로 제작해 발표했다. 2학기에는 '지역 자랑거리 홍보하기'를 주제로 공동책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고서, 만화, 신문, 안내도 등 다양한 형식의 결과물을 완성했다.

이러한 수업 과정은 학생들의 문제해결 능력과 의사소통 역량, 협업 능력을 기르는 동시에 학생 주도성을 키우는 성과로 이어졌으며, 운영 교사들 또한 새로운 수업 방법과 협업 경험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특히 이러한 학생-교사 동반 성장 사례는 현장 교원들의 깊은 공감을 얻으며, 원격화상수업이 미래형 수업의 대표적 모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성과 공유회를 통



해 시도 간 원격화상수업 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공동교육과정 기반 협력 수업 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사 간 협력과 수업 나눔을 통해 원격화상수업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힘을 보탠다. 학생 주도성을 키우는 수업 환경 조성을 통해 미래형 수업으로의 전환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병남 유초등교육과장은 "전남과 경

북 학생들이 물리적 거리를 넘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 자체가 큰 교육적 의미를 지닌다"며 "원격화상수업은 단순한 기술 활용을 넘어 학생 주도성 신장과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중요한 수업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성과 공유회를 계기로 시도 간 협력 수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염선호 기자



영산포 로컬 먹거리로 젊은 세대 공략 나선다

나주시, '영산포 로컬 먹거리 시식회' 개최... 식문화 확장 실험

영산포 고유의 식문화 자산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돼 젊은 세대와 외부 방문객들이 나주에서 로컬 먹거리를 통해 새로운 미식 문화 경험의 첫발을 내딛게 될 전망이다.

15일 나주시(시장 윤병태)에 따르면 청년 창업인 레시피 전수와 지속 가능한 먹거리 콘텐츠 창출을 위해 이날 시청 로비에서 '영산포 로컬 먹거리 시식회'를 개최하고 신규 개발한 지역 특화 메뉴를 공개했다.

이번 시식회는 흥어 중심의 기존 식문화에서 한발 더 나아가 나주와 영산포의 로컬 식재료를 활용한 새로운 먹거리 콘텐츠를 발굴하고 20~30대 젊은 층과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2026 나주방문의해' 홍보와 함께 올해부터 4년간 나주에서 열린 예정인 '남도음식문화큰잔치'에 출품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지역 특화 상품을 발굴하기 위한 취지도 담았다.

행사에는 총 5종의 신규 로컬 메뉴가 공개됐으며 메뉴 개발에는 한식대첩 최진명장과 덤심의 여왕으로 불리는 흑백요리사 정지선 셰프가 참여해 나주와 영산포의 대표 식재료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했다.

특히 특유의 특 쓰는 향으로 인해 호불호가 갈리는 흥어를 보다 친숙하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조리법과 레시피를 적용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주요 메뉴로는 나주 소고기와 양파를 활용한 나주 어린이 소고기 샐러드, 나주 오리고기의 깊은 맛을 살린 영산포구 오리 육개장, 영산포 숙성 흥어와 나주 배를 조합한 영산포 배 흥어 골드 요리, 젊은 층을 겨냥한 영산포 흥어 김밥, 마라 소스로 풍미를 살린 사천식 흥어 냉채 등이 소개됐다.

나주시는 이번 시식회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메뉴 완성도를 높이고 레시피를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완성된 메뉴는 향후 청년 창업인에게 레시피 전수와 상권 내 창업으로 연계해 영산포 상권의 특색 있는 먹거리 콘텐츠로 육성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식회는 단순한 체험 행사가 아니라 로컬 먹거리 개발을 청년 창업과 새로운 미식 문화를 연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출발점"이라며 "검증된 레시피를 기반으로 단계적인 창업 연계를 추진해 영산포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나주/이명열 기자

함평군 대동면 새마을부녀회, '국화빵 나눔 행사'로 이웃사랑

전남 함평군은 "지난 14일 함평군 대동면 새마을부녀회(회장 김운심)가 '사랑의 국화빵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추운 겨울 따뜻한 국화빵으로 이웃 간의 정을 나누고 나눔과 배려의 지역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대동면 변영희회장·이장협의회회장·주민자치회장 등 사회단체장들도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새마을부녀회원들은 직접 구운 국화빵

을 나누며 성금을 모금했으며, 행사 취지에 공감한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해 현장 분위기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다. 모금한 성금 203만 원은 전액 '희망2026 나눔캠페인'에 전달되어 저소득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운심 대동면 새마을부녀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에 희망과 용기가 전해질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



어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윤미순 대동면장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나눔 활동은 지역사회를 더욱 건강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다"며 "전해주시 성금이 꼭 필요한 곳에 소중히 사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함평/전광춘 기자



건강보험 임신·출산 관련 제도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난임 시술
(보조생식술)
급여제도**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



**글로 만나는 강진, 강진군 '귀농귀촌 동네작가' 위촉
도시에서 궁금했던 농촌, 강진이 알려드립니다**

강진군이 지난 13일, 귀농귀촌을 고민하는 도시민들에게 실감나는 정보를 제공하고 강진의 따뜻한 농촌 삶을 소개하기 위한 '귀농귀촌 동네작가'의 2026년 활동을 본격 시작하며 7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귀농귀촌 동네작가'는 지역 주민이 직접 콘텐츠 제작자로 나서, 농촌 현장에서 만 얻을 수 있는 생생한 정보는 물론, 마을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정보 제공자'의 역할을 맡는다.

단순히 지역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귀농귀촌 이후 정착에 성공한 주민들의 인터뷰, 다양한 영농 형태와 일상, 생활 속 꿀팁까지 깊이 있는 콘텐츠를 통해 도시민들에게 실제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올해 위촉된 작가들은 구성부터 남다르다. 귀농한 청년, 귀촌한 시인,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농촌유학센터장 등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콘텐츠의 폭과 깊이가 더욱 넓어졌다.

이들은 자신만의 시선으로 강진을 기록하고, 도시민이 궁금해할 정보에 세심하게 접근하며,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동네작가들은 단순한 마을 소개를 넘어, 지역 축제와 농촌 행사, 전통시장, 영농시설 등 다양한 현장을 직접 찾고, 그 안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살아있는 강진의 모습을 전할 예정이다.

지역의 계절마다 펼쳐지는 축제 현상이

나 농촌교육농장,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같은 곳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들은 도시민에게는 신선한 정보이자 강진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작가들은 SNS 활용 능력과 콘텐츠 기획력, 향후 활동 계획 등을 기준으로 선발됐으며, 앞으로 10개월 동안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강진의 일상을 소개한다.

강진군은 게시물 1건당 3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며,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창작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강진군 동네작가들의 콘텐츠는 귀농귀촌 종합정보 포털 '그린대로'에 게재되며, 지난해 동네작가가 제작한 180건의 글이 7,000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더 많은 이야기와 정보로 예비 귀농귀촌인과의 접점을 넓혀갈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최영아 소장은 "귀농귀촌 동네작가는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해 강진의 농촌 삶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살아있는 정보 창구이다"라며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와 경험을 통해 도시민과 소통하고, 강진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위촉식은 강진군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작가들은 첫 모임을 통해 향후 활동 방향을 공유하고, "강진에 산다는 것 자체가 좋은 콘텐츠"라며 진정성 있는 기록 활동을 다짐했다.

강진/손경설 기자



**고흥군, 노인전담주치의제! 4년째 지속 운영
현장 중심 돌봄 강화, 의료 사각지대 어르신부터 세심하게**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어르신의 건강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현장 중심의 노인전담 주치의제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노인전담 주치의제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4년째 운영 중인 사업이다.

공중보건의사(의과·한의학)와 보건(지)소 직원으로 구성된 전담 인력이 가정방문과 전화상담을 통해 어르신의 안부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만성질환 관리와 복약지도 등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가정방문 20,120명(연인원), 전화상담 62,549건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지난해 아침 식사 섭취율은 8.8%, 주 3회 이상·1회 10분 이상 걷기 실천율은 11.9%로 각각 증가했다. 사업 만족도는 97%로 높게 나타났다.

군은 올해도 사업을 지속 추진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원거리 거주 어르신을 우선 선정하고, 더 촘촘한 건강 돌봄을 이어갈 계획이다.

고흥/박도일 기자